

사별을 경험한 성인의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 애도회피의 매개효과

임수정 황희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김시형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사별 경험자를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에서 애도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후, 사별 경험이 있는 576명의 데이터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 애도회피, 지속비에 증상을 측정하였다. 분석절차는 첫째,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를 확인,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와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스트트래핑 절차를 거쳐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불안애착이 애도회피에, 애도회피가 지속비에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매개효과 검증결과에서는 불안애착과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에서 애도회피의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이는 불안애착이 높아지면 애도회피를 하는 경향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지속비에 증상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속비에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애도회피에 대한 개입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별, 성인, 애도회피, 지속비에, 불안애착, 회피애착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동훈, (110-74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및 외상심리건강연구소, Tel: 02-740-1984, E-mail: dhlawrence05@gmail.com

사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 경험하는 빈번한 트라우마 사건이다. 사별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사별로 야기된 심리적 고통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Stroebe, Schut, & Stroebe, 2007).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별을 경험한 후 점차 적응해 나가는 한편, 일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Bonanno & Mancini, 2008). 사별 이후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 지속비애가 있다.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의 개정판 ICD-11에 따르면 지속비애 장애는 부모, 아이 혹은 다른 가까운 사람의 사별로 인한 장애이며, 고인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마음과 함께 정서적 고통이 수반되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적인 애도반응이다(WHO, 2019). 또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은 이들 중 7~10%가 겪는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하다(Lundorff, Holmgren, Zachariae, Farver-Vestergaard, & O'Connor, 2017; Nielsen et al., 2017; Prigerson et al., 2009). 지속비애는 트라우마적 비애, 복합비애를 포함하며, 현재 비정상적 비애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보편적 명칭으로 사용된다(강현숙, 이동훈, 2017; Maercker & Lalor, 2012).

최근 사별 관련 연구에서는 지속비애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5)에서는 추후연구를 위한 기준 중 하나로 지속복합 사별관련 장애를 제시하고 있으며, ICD-11에서는 지속비애를 독립된 장애로 구분하였다(APA, 2013; WHO, 2019). 국내에서는 지속비애 증상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지속비애 척도(Prolonged grief disorder scale:

PG-13)가 2017년에 타당화 되었으며(강현숙, 이동훈, 2017), 이후 이를 활용한 지속비애 연구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많은 해외 연구자들도 지속비애 증상이 기존의 사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및 우울증과 구분되는 증상임을 보고하고 있다(Boelen & Prigerson, 2007; Boelen, van de Schoot, van de Hout, de Keijser, & van den Bout, 2010; Prigerson et al., 2009). 구체적으로 PTSD는 사건에 대한 생각, 플래시백, 악몽 등에 의한 재경험 등으로 이루어지고, 우울증은 낮은 에너지, 자책, 슬픔, 무가치감 등의 정서로 이루어지며, 지속비애 증상은 갈망,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 타인에 대한 불신, 상실에 대한 쓰라림 등으로 이루어져 각각 구분되는 증상임이 보고되었다(Boelen et al., 2010; Prigerson et al., 2009). 또한 PTSD, 우울증, 지속비애 환자 및 임상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Lichtenthal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비애에 관한 정보를 받은 임상의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임상의 집단에 비해 지속비애를 정확히 진단할 가능성이 4.5배 높았고, 환자의 일반적인 슬픔을 병리화할 가능성은 낮았다. 그 외에도 지속비애 증상이 PTSD 또는 우울증으로 진단될 경우 일반적인 슬픔반응이 과소 혹은 과대평가 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과도한 항우울제 처방과 같은 부적절한 개입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Lichtenthal et al., 2018).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지속비애 증상과 PTSD, 우울증이 구별되어 평가 및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비애 증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성인에착은 사별 이후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변인으로 제시되며, 많은 연구자들은 불안정 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이 애도과정에서 지속비에 증상을 포함한 정서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Fraley & Bonanno, 2004; Maccallum & Bryant, 2013; Stroebe, Schut, & Boerner, 2010). 성인애착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표상을 말하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성인애착은 Hazan과 Shaver(1987)이 Bowlby(1980)의 초기애착이론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개념으로, Bowlby(1980)의 애착유형 분류를 따른다(Mikulincer, 1998). Hazan 과 Shaver(1987)는 연구를 통해 초기 애착유형이 성인이 된 시점까지 지속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불안애착이 높은 개인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지나치게 대인관계에 의존하며, 애착대상이 필요할 때 없거나 안정감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해한다(Fraley & Shaver, 2000;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반면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자신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가까운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멀어지려하는 경향이 있다(Fraley & Shaver, 2000; Mikulincer et al., 2003). Bowlby(1980)는 초기애착으로부터 발전되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불안정 애착이 만성적 애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는 성인의 경우 애도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Hesse(1999)의 성인애착 인터뷰에서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큰 어려움 없이 상실대상에 대해 생각하며 애도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Jerga,

Shaver와 Wilkinson(2011)의 연구결과에서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지속비에 증상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별 후 주요 증상 중 하나인 지속비에 증상의 연구를 위해 성인애착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Bowlby(1980)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불안정 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의 사별을 경험했을 때, 과활성화(Hyperactivation)와 비활성화(Deactivation)의 이차적 전략 과정을 거쳐 지속비에 증상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과활성화와 비활성화는 Schut와 Stroebe(1999)가 제시한 이중과정 모델(Dual-Process Model)과 유사한 개념으로, 과활성화 전략에서는 애도작업, 관계의 지속, 재형성이 일어나는 반면, 비활성화 전략에서는 삶의 변화, 새로운 과업, 애도회피 등이 이루어진다.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두 전략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며 애도작업에 대한 회피와 직면 과정을 거쳐 지속비에 증상에 도달한다(Bowlby, 1980; Schut & Stroebe, 1999).

애도회피는 죽음에 대해 생각,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정의된다(Bonanno, Papa, Lalande, Zhang, & Noll, 2005). Bowlby(1980)의 이론에서 비활성화 전략 중 하나인 애도회피는 연구자들에게 지속비에 증상의 생성과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변인으로서 보고되어 왔다(Boelen, Stroebe, Schut, & Zijerveld, 2006; Boelen, van den Bout, & van den Hout, 2006; Boelen, van den Hout, & van den Bout, 2006). 하지만 국내에서는 애도회피가 지속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해외 연구에서는 애도회피의 역할에 대해 혼재된 연구결과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Bonanno 등(2005)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참여자들에게 각각 사별 이후 적응에 애도회피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애도회피가 미국의 참여자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중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Bonanno et al., 2005; van der Houwen, Stroebe, Schut, Storebe, & van den Bout, 2010).

경험회피는 고통스러운 생각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릴 만한 것들에 대한 주의나 행동을 하지 않고, 현재에 보다 집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다(Shear, 2010). 사별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사별경험에 대해 떠올리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경험회피는 애도회피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van der Houwen 등(2010)의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애도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Wilson(2012)의 연구에서는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이 경험적 회피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oss, Hinshaw와 Murdock(2016)의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경험회피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 밖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불안애착이 경험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Castilho et al., 2017; Quinlan, Deane, Crowe, & Caputi, 2018; Vanwoerden, Kalpakci, & Sharp, 2015).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성인애착이 지속비에 증상이 나타나고 유지되는데 관련이 깊은 변인인 애도회피, 경험회피를 예측한다는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Bowlby(1980)의 이론, Schut

& Stroebe(1999)의 이론을 바탕으로, 성인애착이 애도회피를 매개하여 지속비에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애착은 지속비에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비교적 개입이나 변화가 어려운 변인이다. 따라서 애착과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에서 개입이나 변화가 가능한 매개변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애착, 애도회피, 지속비에 증상의 세 변인 간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애착과 지속비에 증상 간 관계에서 애도회피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van der Houwen et al., 2010; Wilson, 2012). 이에 따라 성인애착과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 및 성인애착과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써 애도회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1.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 애도회피, 지속비에 증상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에서 애도회피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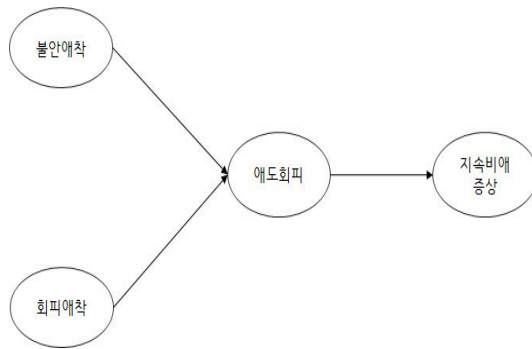


그림 1. 완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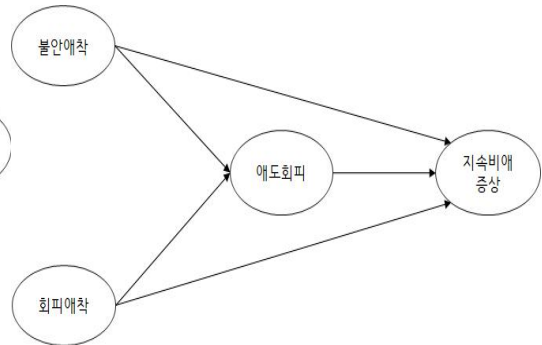


그림 2. 부분매개모형

방 법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으로부터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 윤리 및 생명 윤리에 관한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SKKU 2015-01-006-014). 연구 자료는 한국의 약 100만명의 패널을 보유한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수집되었으며, 지역, 성별, 연령을 최대한 인구센서스 기준에 맞춘 국내 성인 1,200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되었고 작성 시간은 대략 23분이 소요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서버이 기관을 통해 보상이 지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601명의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또한, 지속비에 증상이 '상실을 경험 후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로 인한 고통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비정상적 비애'라고 제안한 ICD-11의 기준에 맞추어(Prigerson et al., 2009), 상실 경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

은 23부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는 576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576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284명(49.3%), 여성이 292명(50.7%)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은 최소 만 20세부터 최고 만 55세까지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0.41세, 표준편차는 9.54로 확인되었다.

측정도구

성인 애착(불안애착 및 회피애착). 본 연구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Fraley와 Shaver (2000)가 개발하고, 윤희림 등(2017)이 타당화한 친밀관계경험 척도의 단축형(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K14)을 사용하였다. ECRR-K14는 불안애착 7문항(예: '그/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과 회피애착 7문항(예: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그/그녀와 나누는 것이 편안하다.')인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불안애착은 관계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

움, 유기에 대한 걱정의 정도를 측정하며, 회피에 착은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의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측정한다. 본 척도는 불안애착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애착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회피애착은 점수가 낮을수록 회피애착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애착의 경우 역채점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윤혜림 등(2017)의 연구에서 확인한 Cronbach's α 는 각 하위영역별 .93,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불안애착이 .89, 회피애착이 .90으로 나타났다.

애도회피. 본 연구에서는 Bonanno와 동료들(2005)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애도회피 척도(Deliberate Grief Avoidance Scale)를 조선휘, 강영신(2015)이 국내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변인(친구회피, 가족회피, 혼자회피, 일반적 회피)을 가지며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1점(거의 없다)에서 5점(매우 많이 있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도회피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지난 1개월 동안 당신이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 혼자 있을 때, '상실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피했습니까?'를 각각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휘, 강영신(2015)의 연구에서 본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애도회피의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지속비에 증상. 본 연구에서는 상실 이후 응답자가 경험하는 지속비에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

여 Prigerson 등(2009)이 개발하고 강현숙, 이동훈(2017)이 국내에 타당화한 한국판 지속비에 척도(K-Prolonged Grief Disorder-13)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지속비에 척도는 분리 디스트레스(4문항), 트라우마적 디스트레스(7문항), 지속기간(1문항), 기능 손상 정도(1문항), 총 4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당신은 사별 이후 삶이 보람 없고,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고 느끼니까?', '당신은 사별에 대해 원통한 감정을 느끼니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능손상 정도와 지속기간을 제외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지속기간과 기능 손상 문항을 제외하고, 지속비에 증상을 측정하는 분리 디스트레스와 트라우마적 디스트레스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속비에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Prigerson 등(2009)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이었다. 국내 강현숙, 이동훈(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지속비에 증상의 Cronbach's α 는 .90 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Mplus 8.0과 SPS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21.0을 사용하여 연구 변인(불안애착, 회피애착, 애도회피, 지속비에 증상)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자료의 일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Mplus 8.0을 활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고, 모형 적합도 및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셋째, Mplus 8.0을 이용하여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에서 애도회피가 완전매개하는 모형과 부분매개하는 모형 간 모형 적합도의 차이를 통해 최종 연구모형을 확정하고 경로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ML) 추정방식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개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상샘플 수를 10,000번으로 설정하고, 95% 신뢰구간을 이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인인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애도회피, 지속비에 증상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상관계수를 확인하였

다.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단일변인이기 때문에 잠재변수로 사용하기 위한 문항꾸러미(item-parcel)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김수영(2016), Russell, Kahn, Spoth, Altmaier(1998)의 권유에 따라 3개의 측정변수로 만들었다. 문항꾸러미는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균등한 요인부하량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Kline(2015)의 제안에 따라 구조방정식에서 왜도는 3 첨도는 7이 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연구변인의 첨도와 왜도가 정규성과 경향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65(90% 신뢰구간=.055~.076)이며, SRMR(Standardis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039, CFI(Comparative Fit Index)는 .98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u와 Bentler(1999),

표 1. 기술통계치와 상관계수

변인	1	2	3	4
1.불안애착	-			
2.회피애착	.19**	-		
3.애도회피	.26**	.13**	-	
4.지속비에 증상	.25**	.14**	.66**	-
<i>M</i>	2.82	3.22	1.78	1.83
<i>SD</i>	1.52	1.41	1.00	.73
왜도	.27	.51	1.17	1.14
첨도	-1.19	.08	.29	.85

주. ** $p < .01$.

Steiger(2007)가 제시한 CFI는 .95보다 높고, SRMR은 .06, RMSEA는 .07보다 낮아야 적합하다는 기준을 충족해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하였다. 이후,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 부하량을 검토하였다. 확인한 결과, Kline(2015)이 제안한 요인 부하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는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에서 애도회피가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부분매개 하는 모형과 완전매개

하는 모형을 비교하여 최종 연구모형을 선택하였다. 먼저 본 연구모형이 Steiger(2007) 그리고 Hu와 Bentler(1999)가 제안한 모형 적합도 기준에 수용가능한 정도인지 확인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분매개모형 [$\chi^2=166.368(df=48, p=.000)$, CFI=.980, SRMR=.039, RMSEA=.065(.055~.076)] 과 완전매개모형 [$\chi^2=170.915(df=50, p=.000)$, CFI=.979, SRMR=.041, RMSEA=.065(.054~.076)]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적합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연구모형 선택을 위해 내재된 모형 간 비교를 위해 χ^2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Kline, 2015). 그 결과 χ^2 차이는 4.547($df=2,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더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모형의 추정치

	$\beta(B)$	S.E.	t
불안애착			
불안애착1	.907(1)		
불안애착2	.951(1.021)	0.028	36.808***
불안애착3	.868(0.866)	0.028	30.967***
회피애착			
회피애착1	.854(1)		
회피애착2	.936(1.126)	0.035	31.9***
회피애착3	.953(1.128)	0.035	32.647***
애도회피			
가족애도회피	.914(1)		
친구애도회피	.898(0.996)	0.029	34.271***
혼자애도회피	.865(1.013)	0.032	31.243***
일반애도회피	.905(0.944)	0.027	34.945***
지속비에 증상			
트라우마적 디스트레스	.667(1)		
분리 디스트레스	.754(1.101)	0.08	13.757***

주. *** $p<.001$.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df	p	CFI	SRMR	RMSEA(95%신뢰구간)	$\Delta\chi^2$
부분매개모형	166.368	48	.000	.980	.039	.065(.055~.076)	4.547
완전매개모형	170.915	50	.000	.979	.041	.065(.054~.076)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불안애착이 애도회피로 가는 경로($\beta = .263, p < .001$), 애도회피로부터 지속비에 증상으로의 경로($\beta = .836, p < .001$)는 유의하였다. 이는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애도회피가 높아지고, 애도회피가 높을수록 지속비에 증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피애착에서 애도회피로 가는 경로($\beta = .084, p > .05$)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그림 3, 표 4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개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개별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불안애착과 지속비에 증상과의 관계에서 애도회피의 매개효과는 추정값이 .087이고 95% 신뢰구간(.054~.122)에 '0'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지속비에 증상이 높은 것은 불안애착이 애도회피를 높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회피애착과 지속비에 증상과의 관계에서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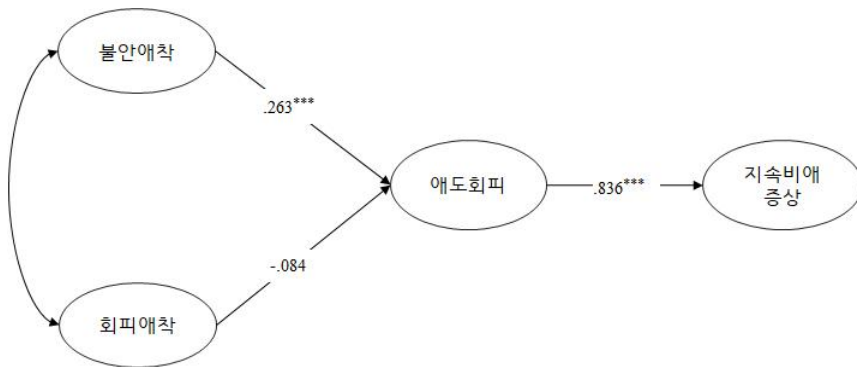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경로	β (B)	S.E.	t
불안애착 → 애도회피	.263(0.168)	0.028	6.018***
회피애착 → 애도회피	.084(0.066)	0.034	1.949
애도회피 → 지속비에 증상	.836(0.516)	0.03	17.289***

주. *** $p < .001$.

표 5. 개별 매개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불안애착->애도회피->지속비에 증상	.087	.054	.122
회피애착->애도회피->지속비에 증상	.034	-.001	.073

도회피의 매개효과는 추정값이 .034이고 95% 신뢰구간(-.001~.073)에 '0'이 존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별 경험이 있는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 애도회피, 지속비에 증상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애도회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주요 결과와 논의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성인 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 애도회피, 지속비에 증상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은 애도회피에, 애도회피는 지속비에 증상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애도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으며, 애도를 회피하는 것은 사별 이후 지속적인 비애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불안애착은 애도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Houwen et al., 2010). 또한 불안애착이 경험 회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외 연구 결과들(Boelen & Klugkist, 2011; Castilho et al., 2017; Ross et al., 2016)과 맥을 같이 한다. 여러 국내 연구에서도 불안애착이 경

험회피를 예측하고, 경험회피가 우울 등 여러 부적응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김은영, 이지은, 2015),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Bowlby(1980)에 의하면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하지 못하며, 삶의 많은 과업들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어려워한다. 그러므로 고인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 생각, 기억이 떠올랐을 때 이를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애도과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한편 회피애착과 애도회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회피애착은 애도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피애착이 애도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Houwen et al., 2010).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회피애착이 경험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Castilho et al., 2017), 경험 회피를 회피애착이 충분히 예측한다는 일부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아라, 이경순, 2018; 조영미, 이희경, 2013; Boelen & Klugkist, 2011; Ross et al., 2016). 두 변인 간 상관이 정적 상관이 나타난 이유는 개념적인 유사성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변인은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회피하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적상관이 나

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은 사별이나 상실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애착 대상에 대한 생각, 기억,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꺼려한다(Bowlby, 1980). 그러므로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회피 애착이 높은 사람은 다른 애착유형에 비해 이러한 정서경험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여 사별의 고통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Bowlby, 1980) 의도적으로 애도과정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낮을 수 있다.

또한 애도 회피가 지속비에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의 경우 배우자 혹은 자녀를 사별한 사람의 애도 회피가 장기적인 지속비에 증상을 예측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Bonanno et al., 2005), 경험 회피가 지속비에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Morina, 2011; Schnider, Elhai, & Gray, 2007; Shear et al., 2007). 그러나 애도 회피와 지속비에 증상 간 연관성을 다룬 것은 본 연구가 국내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사별 이후 경과 시간, 사별의 대상, 유형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종단연구를 통해 다시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Bonanno 등(2005)의 연구에서 중국의 연구 참여자는 사별대상이 각각 배우자, 자녀인 경우 모두 4개월 시점에 비해 18개월 시점에서 심리적 고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 사별대상이 배우자였을 때는 중국의 결과와 동일하였으나, 자녀를 사별한 경우 4개월 시점보다 18개월 시점에서 심리적 고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별 대상이 어떤 관

계였는지에 따라서도 심리적 고통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사별의 대상, 유형과 기간 등에 따른 애도회피와 지속비에의 연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에서 애도회피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확인한 결과, 불안애착과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에서 애도회피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은 사별 경험에 대해 떠올리고, 이야기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를 꺼려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비에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경험 회피가 증가하고 이는 지속비에 증상이나 사회불안 등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조영미, 이회경, 2013; Boelen & Klugkist, 2011; Castilho et al., 2017). 한편, 이는 불안정 애착과 비애증상의 관계에서 애도회피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했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데(van der Houwen et al., 2010), 이는 van der Houwen(2010) 등의 연구에서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 위한, 사별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로 제한적이었으며, 90% 이상이 여성 참여자로 이루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 특히 사별 경험에 관련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자에게서는 애도 회피라는 변인을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조사로 대상자 표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애도회피에 대한 의미가 참여자들에게서 서로 다를 수 있다.

반면 회피애착과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에서 애도회피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렇듯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에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각각의 애착이 경험하는 애도 과정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Bowlby(1980)는 불안정 애착이 두 가지의 역기능적 애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는데, 각각 ‘만성적 애도(chronic mourning)’와 ‘의식적 비애과정의 지속된 부재(prolonged absence of conscious grieving)’이다. 만성적 애도는 압도적인 불안감이나 슬픔의 경험, 온전한 기능으로 돌아오는 데의 지속적 어려움, 상실대상에 대한 반추, 고인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수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반면 의식적비애 과정의 지속된 부재, 즉 지연된 비애(delayed grief; Stroebe, Hansson, Stroebe, & Schut, 2001)는 사별로 인한 슬픔, 분노, 고통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우며, 사별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혼란을 겪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Bowlby(1980)는 불안애착이 만성적 애도를, 회피애착이 지연된 애도를 각각 설명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피애착이 높은 개인은 의도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애도과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에 대한 정서경험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불안애착과는 달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점수가 모두 높은 경우가 포함된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또한 회피를 측정하는 척도, 구성 개념의 정의 등을 연구마다 다르게 사용한 것, 특히 애도 회피와 애착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애도 회피 척도를 이용하여, 사별 경험 이후 애도 회피가 불

안정 애착과 지속 비애 간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양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중단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애도회피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정 점수나 정보를 활용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애도회피의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지속비에 증상 간 관계에서 애도회피의 완전매개효과는 불안애착이 높은 내담자가 애도를 회피하지 않도록 심리적 개입을 한다면, 지속비에 증상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애도회피에 적절한 개입이 지속비에 증상의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애도회피에 개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인지행동치료 맥락의 노출을 통한 직면 기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상실에 따른 영향을 회피하지 않고 정교화 하여 직면하며, 자기와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실제, 즉 현실에 통합하는 과정은 애도 작업에 있어 핵심적인 작업이다(Boelen, van den Hout, & van den Bout, 2006; Michael & Snyder, 2005). 즉, 치료자는 내담자가 사별이라는 현실과 그로 인한 영향과 변화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는 내담자가 회복,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내담자가 사별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미의 재구성(meaning reconstruction) 하도록 돕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Lichtenthal & Cruess, 2010; Wagner, Knaevelsrud, & Maercker, 2006). 상실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보다 적응적인 애도과정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최선재, 안현의, 2013; Holland, Currier, & Neimeyer, 2006; Neimeyer, 1998, 2001). 종합하자면, 애도과정을 회피하는 내

담자가 상실경험을 직면하여 이해하고, 의미를 재구성하여 이후 삶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개입은 애도회피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내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과 지속비에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중요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느낌을 떠올리며 성인애착 척도에 답하도록 했다. 즉 중요하고 친밀한 타인에 대한 애착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애착의 대상을 고인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서, 사별한 고인과의 관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애착의 대상과 사별 대상을 일치시켜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회피 애착과 경험 회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조영미, 이희경, 2013; Castilho et al., 2017; Morina, 2011; Schnider et al., 2007).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애도 회피라는 변인을 구체적으로 보기보다 인지방략으로써의 경험 회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애착과 지속비에 증상의 관계에서 애도회피라는 고유한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별이라는 트라우마 유형에서 애도 과정과 애도 회피라는 변인은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Baker et al., 2016; Bonanno et al., 2005).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애도회피의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는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따라서 온라인에 접근 가능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이라는 하나의 연구방법으로 진행한 데 따른

제한점 또한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를 통해 애착, 애도회피, 지속비에 증상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살펴보는 등 여러방법을 병행하여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횡단연구로써의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불안정 애착이 지속비에 증상으로 가는 경로에서 애도회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있으나, 세 변인 모두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성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모두 높은 경우 부정적 사건에 대한 직면과 회피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애착의 두 차원에 따른 유형을 각각 구분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애도회피와 지속비에 증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현숙, 이동훈 (2017). 한국판 지속비에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1027-1052.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김은영, 이지은 (2015). 대학생들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345-358.

고아라, 이경순 (2018). 성인애착과 소셜미디어 중독경향성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4(3), 593-619.

윤혜림, 이원기, 배금예, 이상원, 우정민, 원승희 (2017). 한국어 개정판 친밀관계경험 척도의 단축형 개발. *대한불안학회지*, 13(2), 115-122.

조선화, 강영신 (2015). 애도 회피에 따른 침투적 반추

- 가 심리적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 및 자기노출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641-663.
- 조영미, 이희경 (2013).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227-1245.
- 최선재, 안현의 (2013).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323-34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 Baker, A. W., Keshaviah, A., Horenstein, A., Goetter, E. M., Mauro, C., Reynolds III, C. F., ... & Simon, N. M. (2016). The role of avoidance in complicated grief: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grief-related avoidance questionnaire (GRAQ) in a large sample of individuals with complicated grief. *Journal of Loss and Trauma*, 21(6), 533-547.
- Boelen, P. A., & Klugkist, I. (2011). Cognitive behavioral variables mediate the associations of neuroticism and attachment insecurity with prolonged grief disorder severity. *Anxiety, Stress, & Coping*, 24(3), 291-307.
- Boelen, P. A., & Prigerson, H. G. (2007). The influence of symptoms of prolonged grief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on quality of life among bereaved adults.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7(8), 444-452.
- Boelen, P. A., Stroebe, M. S., Schut, H. A., & Zijerveld, A. M. (2006). Continuing bonds and grief: A prospective analysis. *Death Studies*, 30(8), 767-776.
- Boelen, P. A., van den Bout, J., & van den Hout, M. A. (2006). Negative cognitions and avoidance in emotional problems after bereavement: A prospective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1), 1657-1672.
- Boelen, P. A., van den Hout, M. A., & van den Bout, J. (2006). A cognitive-behavioral conceptualization of complicated grief.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3(2), 109-128.
- Boelen, P. A., van de Schoot, R., van den Hout, M. A., de Keijser, J., & van den Bout, J. (2010). Prolonged grief disorder,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re distinguishable syndrom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5(1), 374-378.
- Bonanno, G. A., & Mancini, A. D. (2008).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in the face of potential trauma. *Pediatrics*, 121(2), 369-375.
- Bonanno, G. A., Papa, A., Lalande, K., Zhang, N., & Noll, J. G. (2005). Grief processing and deliberate grief avoidance: A prospective comparison of bereaved spouses and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1), 86-98.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Castilho, P., Martins, M. J., Pinto, A. M., Viegas, R., Carvalho, S., & Madeira, N. (2017). Understanding the effect of attachment styles in paranoid ideation: The mediator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al Science*, 6(1), 42-46.
- Fraley, R. C., & Bonanno, G. A. (2004). Attachment and loss: A test of three competing models on

- the association between attachment-related avoidance and adaptation to bereav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7), 878-890.
- Fraley, R. C., & Shaver, P. R.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32-154.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3), 511-524.
- Hesse, E. (1999).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Historical and current perspective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 395-433). The Guilford Press.
- Holland, J. M., Currier, J. M., & Neimeyer, R. A. (2006). Meaning reconstruction in the first two years of bereavement: The role of sense-making and benefit-finding.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53(3), 175-191.
- Houwen, K. V. D., Stroebe, M., Stroebe, W., Schut, H., Bout, J. V. D., & Meij, L. W. D. (2010). Risk factors for bereavement outcome: A multivariate approach. *Death Studies*, 34(3), 195-22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erga, A. M., Shaver, P. R., & Wilkinson, R. B. (2011). Attachment insecurities and identification of at-risk individuals following the death of a loved on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8(7), 891-914.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 Lichtenthal, W. G., & Cruess, D. G. (2010). Effects of directed written disclosure on grief and distress symptoms among bereaved individuals. *Death Studies*, 34(6), 475-499.
- Lichtenthal, W. G., Maciejewski, P. K., Demirjian, C., Roberts, K. E., First, M. B., Kissane, D. W., ... & Napolitano, S. (2018). Evidence of the clinical utility of a prolonged grief disorder diagnosis. *World Psychiatry*, 17(3), 364-365.
- Lundorff, M., Holmgren, H., Zachariae, R., Farver-Vestergaard, I., & O'Connor, M. (2017). Prevalence of prolonged grief disorder in adult bereave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12, 138-149.
- Maccallum, F., & Bryant, R. A. (2013). A cognitive attachment model of prolonged grief: Integrating attachments, memory, and identity.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6), 713-727.
- Maccallum, F., & Bryant, R. A. (2018). Prolonged grief and attachment security: A latent class analysis. *Psychiatry Research*, 268, 297-302.
- Maercker, A., & Lalor, J. (2012). Diagnostic and clinical considerations in prolonged grief disorder.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14(2), 167-176.
- Michael, S. T., & Snyder, C. R. (2005). Getting unstuck: The roles of hope, finding meaning, and rumination in the adjustment to berea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Death Studies*, 29(5), 435-458.
-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affect regulation: Strategic variations in self-apprais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420-435.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Morina, N. (2011). Rumination and avoidance as predictors of prolonged grief,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in female widowed survivors of war.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9(12), 921-927.
- Neimeyer, R. A. (1998). *Lessons of loss: A guide to coping*. New York: McGraw Hill.
- Neimeyer, R. A. (2001). *Meaning reconstruction & the experience of loss*.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ielsen, M. K., Neergaard, M. A., Jensen, A. B., Vedsted, P., Bro, F., & Guldin, M. B. (2017). Predictors of complicated grief and depression in bereaved caregivers: A nationwide prospective cohort study.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53(3), 540-550.
- Prigerson, H. G., Horowitz, M. J., Jacobs, S. C., Parkes, C. M., Aslan, M., Goodkin, K., ... & Bonanno, G. (2009). Prolonged grief disorder: Psychometric validation of criteria proposed for DSM-V and ICD-11. *Plos Medicine*, 6(8), e1000121.
- Quinlan, E., Deane, F. P., Crowe, T., & Caputi, P. (2018). Do attachment anxiety and hostilit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tial avoid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mental health carers?.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al Science*, 7, 63-71.
- Ross, A. S., Hinshaw, A. B., & Murdock, N. L. (2016). Integrating the relational matrix: Attachment style, differentiation of self, triangulat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8(4), 400-411.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chnider, K. R., Elhai, J. D., & Gray, M. J. (2007). Coping style use predicts posttraumatic stress and complicated grief symptom severity among college students reporting a traumatic lo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3), 344-350.
- Schut, M., Stroebe, H. (1999).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Rationale and description. *Death Studies*, 23(3), 197-224.
- Shear, M. K. (2010). Exploring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from the perspective of attachment theory and the dual process model.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1(4), 357-369.
- Shear, K., Monk, T., Houck, P., Melhem, N., Frank, E., Reynolds, C., & Sillowash, R. (2007). An attachment-based model of complicated grief including the role of avoidance.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7(8), 453-46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eiger, J. H. (2007). Understanding the limitations of global fit assessmen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5), 893-898.
- Strobe, M., Hansson, R. O., Stroebe, W., & Schut, H. (2001).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roebe, M., Schut, H., & Boerner, K. (2010). Continuing bonds in adaptation to bereavement: Toward theoretical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259-268.

- Stroebe, M., Schut, H., & Stroebe, W. (2007). Health outcomes of bereavement. *The Lancet*, *370*(9603), 1960-1973.
- van der Houwen, K., Stroebe, M., Schut, H., Stroebe, W., & van den Bout, J. (2010). Mediating processes in bereavement: The role of rumination, threatening grief interpretations, and deliberate grief avoidance. *Social Science & Medicine*, *71*(9), 1669-1676.
- Vanwoerden, S., Kalpakci, A. H., & Sharp, C. (2015). Experiential avoidance mediates the link between maternal attachment style and theory of mind. *Comprehensive Psychiatry*, *57*, 117-124.
- Wagner, B., Knaevelsrud, C., & Maercker, A. (2006). Internet-bas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complicated grief: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Death Studies*, *30*(5), 429-453.
- Wilson, V. R. (2012). *Attachment, experiential avoidance, and mindfulness in the narrative disclosure task*.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MA. USA.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9). *ICD-11 for 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icd.who.int/browse11/1-m/en#/http://id.who.int/icd/entity/1183832314>

원고접수일: 2019년 9월 3일

논문심사일: 2019년 9월 24일

게재결정일: 2020년 3월 25일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Prolonged Grief of Adults Who Have Bereaved: Mediating Effect of Deliberate Grief Avoidance

Sujeong Lim Hee Hun Hwang Si Hyeong Kim Dong Hu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f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xiety/avoidance attachment) and prolonged grief (PG) is mediated by deliberate grief avoidance (GA). Participants in this study (1,200 adults) completed an online survey measuring demographic information, insecure attachment, GA, and PG. We only used data of 576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bereavement. The analysis procedure is as follow: First,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were conducted. Second, the measurement model was verified through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ir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used to verify the model fit indices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Finally, through the bootstrapping proces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on effect was verifi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anxiety attachment on GA and the effect of GA on P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well as that GA mediated the link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PG.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bereavement, adult, deliberate grief avoidance, prolonged grief,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